A QUALITATIVE STUDY ON A HOSPITALITY MINISTRY FOR IMMIGRANTS BASED ON THEIR SETTLEMENT PROCESS IN THE KOREAN CHURCH

A Professio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Kwiho Kim

May 2021

This Professional Project completed by

Kwiho Kim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Hyun Sun Oh, Chairperson

Namjoong Kim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21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HOSTPITABLE MINISTRY WITH IMMIGRANTS BASED ON THEIR SETTLEMENT PROCESS IN THE PROCESS

by

Kwiho Kim

Globally, immigration has been on the rise. Especially in Korea, with a rapid increase of immigrants in recent years, an understanding of diverse, multicultural perspectives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An influx of immigrants also calls upon the church to keep up with the challenges brought forth by diversity, hybridity, and multiculturalism.

This study seeks to draw upon immigrant experiences at a church herein referred to as “Exhibit A” and offer a ministry of hospitality. Thus, for this qualitative research of Exhibit A’s immigrant congregation, I conducted interviews classified by age group and analyzed their results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It is expected that a non-immigrant congregation and its pastorate will gain a deeper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their immigrant counterparts. It is my goal to present a ministry of hospitality for the church at large.

KEYWORDS: Immigrant, Postcolonialism, Hospitality, Agency, Qualitative Research

국문 초록

환대를 지향하는 목회 돌봄을 위한

이주민 교우의 한국 교회 정착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by

Kwiho Kim

1980 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 이주민 증가 현상은 교회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단일 인종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인식과 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 교회 역시 이주민의 증가를 경험하면서 다문화 사회의 시민들이 인식해야 할 다양성, 혼종성, 다문화성을 이해하고, 선주민 교우와 이주민 교우 간 상생을 추구하는 신앙공동체로 변화해 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A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교회 경험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이주민을 환대하는 목회, 나아가 선주민과 상생하는 교회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환대 지향적인 목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을 위해 A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주민 교우들이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질적 연구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질적 연구를 위하여 나는 A 교회의 이주민 교우들을 각 연령대별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관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선주민 교우들과 목회자들은 이주민 교우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 더 나아가 나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주민 교우들을 환대하며 함께 하나 된 교회를 꿈꾸는 ‘환대 지향적인 목회신학’을 제안하고자 한다.

키워드: 이주민,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환대, 에이전시, 질적 연구

SUMMARY

Since the late 1980s, the increase of immigrants to Korea has challenged the society at large, creating the need for more awareness and a receptive understanding. The church is not exempt from this challenge and requires a model of pastoral care to address the increasing immigrant population. I was first able to experience what it means to be an immigrant after a visit to the United States in 2018. It opened my eyes to the difficulty and discomfort facing many immigrants, such as assimilating into a new culture and learning a language that is completely foreign to them.

In applying to the Doctor of Ministry program in Practical Theology a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the summer of 2019, I became even more interested in the immigrant experience,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 Theology for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Thereafter, I began to examine the immigrants at church Exhibit A. In tracking the turnover rate of immigrants over the past few years, I noticed that the figures for immigrants were statistically lower than that of non-immigrants.

Based on these figures, I proceeded with a qualitative research project in order to discover both their general experiences and faith formation at Exhibit A. I conducted research with 10 immigrant participants according to phenomenological methods. From the research, I found them to be largely passive and dependent in nature, sharing experiences of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and having difficulty overcoming linguistic and cultural barriers.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se issues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and to present a solution for the church to transform into an agent of hospitality and equality. The final piece is a proposal for worship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국문 요약

1980 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 이주민 증가 현상은 교회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단일 인종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인식과 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 교우들에 대해 한국 교우들과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목회 돌봄의 자세로 이주민 교우들과 상생해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사회와 교회의 다문화 현상을 인식하는 구체적인 경험이 나에게 있었다. 짧은 기간이었으나 2018 년 미국교회 탐방을 할 때였다. 당시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낯선 문화가 준 불편함은 오히려 여러 가지 성찰 거리를 나에게 주었고, 특히, 한국 교회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가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019 년 시작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도 이주민 교우들의 관점을 고려하며 신학 수업을 이어갔다.

그 후, A 교회를 중심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쓰게 되었고, 이주민 교우들과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A 교회를 방문한 이주민들이 교우로 등록하여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이 선주민 교우들의 경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관찰하였고, 그 결과 이주민 교우의 정착률이 선주민 교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한국 교회와 사회의 전반적 사회 변화 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10 명의 이주민과 심층 면담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나는 심층 면담에서 이주민이 경험하는 교회 생활의 내용과 그에 따른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을 구성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현상학적 질적 연구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주민이 가진 수동적이며 의존적 성향, 선주민 교우들로부터 경험한 억압과 무시, 그리고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른 소통의 어려움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 결과들을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환대 신학의 내용을 적용하였다. 환대 신학은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환대 신학적 에이전시로서의 교회와 평등 지향적 교회 공동체의 구성에 중요한 신학적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환대와 포스트 콜로니얼 관점의 성찬 예배를 실천적 제안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다문화 사회에서 요청되는 인식과 태도들을 교회 교육과 선교, 목회 방향과 문화로 접목하고자 하는 신앙공동체, ‘다름’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식하여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 태도를 상호학습하려는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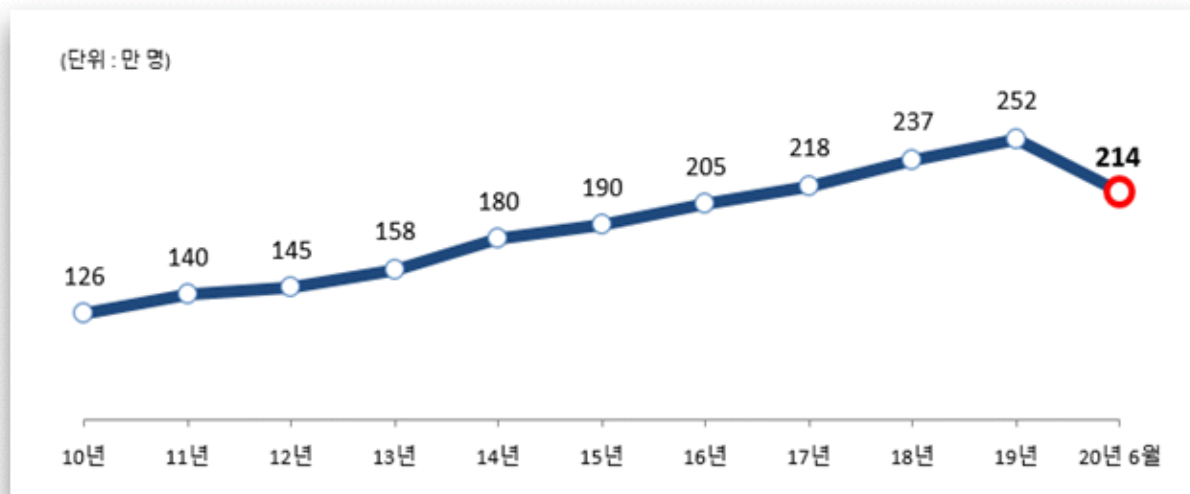
Chapter Ⅰ

서론 (Introduction)

A. 문제 제기(Rationale)

범세계적으로 국가 간 인구의 이동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1980 년대 후반 이래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해외 이주민의 증가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변화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다음에 나오는 <표 1. 체류 외국인 현황>과 같이 2010 년 126 만 명이었던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하여 2019 년 252 만 명으로 그 수가 2 배가 되었다. 그리고 2020 년 6 월 기준 214 만 명으로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1] 이는 전 세계 COVID-19 유행병으로 국가 간 인구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표 1. 체류 외국인 현황>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년 6 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accessed September 3, 2020, http://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599123156397100.

214 만 명이라는 숫자에 혼인이주자, 귀화자, 또 그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한국 사회 이주민의 숫자는 더 커진다. 이러한 이주민의 증가가 시사하는 것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더불어 공존 가능한 시민사회의 인식과 태도 변화에 사회 전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도 이주민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여 공존과 상생의 신앙공동체를 도모해야 한다.

나는 2018 년 미국 교회 탐방을 통해 잠시 잠깐 미국 사회 속에서 이주민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경험은 기쁘고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특별히 미국 교회를 탐방하면서 내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언어였다. 영어가 서투른 나에게 미국 교회 예배는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영어 설교를 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찬양과 기도, 교제하는 순서 등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점점 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체 주변인이 되어 관망하듯 예배에 참여하였다. 예배 중 현지인들은 밝은 얼굴로 타 문화권에서 온 나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환대했지만 나는 머뭇머뭇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그저 미소로만 화답할 수밖에 없었다. 언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예배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도,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질문하기를 머뭇거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점점 더 말하는 횟수가 적어지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미국 교회 탐방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낯선 곳에서의 경험은 고스란히 낯선 한국 땅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한국 교회에 등록하여 교회 생활을 하는 이주민들도 동일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주민 교우들이 언어의 장벽과 함께

주변인처럼 주변을 맴돌며 적극적인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예배를 관망하며 예배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한국 사회와 교회에 존재하는 이주민에 대한 목회적 관심을 촉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at Willamette University)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D.Min. in Practical Theology) 과정의 연구 주제로 이어지며 A 교회를 중심으로 이주민 교우들의 정착 과정을 분석하고 연구하게 되었다.

이 논문을 위한 연구 참여자들이 있는 A 교회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다. 중국교포가 특히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대림동과 가리봉동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터라 A 교회는 이주민의 방문이 다른 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A 교회를 방문하지만 A 교회는 새 가족이 오면 바로 교인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A 교회의 '등록 교인'이 되려면 5 주간의 새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해야만 한다. 그리고 5 주간의 새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새 가족을 속회에 연결한 후, 3 개월 이상 예배 출석 및 속회, 교회의 각종 모임에 활동하는 경우에 한해 A 교회는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가등록한 새 가족'으로 구분되며, 정식 등록 교인의 수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번 포함된 정식 등록 교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A 교회를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A 교회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 제적 처리한다. A 교회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교인으로 정식 등록한 이주민은 2018 년 26 명이었고, 2019 년은 44 명이었다. 해마다 등록 교인이 아닌 단기간 출석하거나 여러 행사로 잠시 방문한 이주민까지 포함하면 A 교회를 방문하는 이주민 수는 등록 교인 이주민 수보다

2~3 배 이상 많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지난 4 년간 A 교회의 새 가족 정착률을 비교해 놓은 표이다.

〈표 2. A 교회 선주민, 이주민 새 가족 교우 정착률 비교〉

년도	선주민 새 가족 등록인원	선주민 새 가족 정착인원	선주민 새 가족 정착률	이주민 새 가족 등록인원	이주민 새 가족 정착인원	이주민 새 가족 정착률
2016 년	161 명	74 명	45.9 %	29 명	3 명	10.3 %
2017 년	200 명	91 명	45.5 %	57 명	7 명	12.2 %
2018 년	158 명	73 명	46.2 %	26 명	5 명	19.2 %
2019 년	160 명	95 명	59.3 %	44 명	18 명	40.9 %

2020 년 1 월 31 일 기준

A 교회 정착률을 비교해 보면 이주민 새 가족 정착률이 선주민 새 가족 정착률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교회의 선주민 새 가족 정착률은 모두 4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4 년이 지나도 그 비율이 거의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 새 가족 교우들의 정착률은 새 가족 등록 이후 1 년을 지나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019 년에 등록하여 지난 몇 개월간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 새 가족 교우는 44 명 중 18 명, 정착률은 40.9%이다. 2018 년에 등록하여 현재까지 1 년 넘게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 새 가족 교우는 26 명 중의 5 명, 정착률은 19.2%이다. 2017 년에 등록하여 2 년 넘게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 교우 인원은 57 명 중의 7 명, 12.2%로 더

떨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주민 새 가족 교우가 선주민 새 가족 교우들보다 교회에 정착하기 더 어렵다는 결과를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선주민 새 가족 교우들보다 이주민 새 가족 교우들의 정착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현상에 관해 새 가족 담당 목회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여 A 교회 이주민 새 가족 교우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해 보았다. A 교회 새 가족 담당 목회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이주민 새 가족 교우들은 주로 한국에서의 취업 문제와 주거 계약기간(2 년 주기), 한국 사회 및 교회 적응 등의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주민 새 가족 교우가 안정적으로 A 교회에 정착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선주민 새 가족 교우와는 달리 보통 2~3 년 정도를 지나 보아야 알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답변과 통계 결과에 기반하여 나는 A 교회 이주민 새 가족 교우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다.

1. 이주민 교우가 A 교회를 처음 방문한 이후 몇 주, 몇 개월 동안 그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2. 그 경험이 교회 정착률의 하향세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3. A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주민 교우들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가?
4. 등록한 이주민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할 수 있도록 A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5. 이주민 교우들이 A 교회 예배와 사역에 바라는 소망은 무엇인가?
6. 낯선 이주민 교우를 대하는 선주민 교우들 자세와 태도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주민 교우들이 A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A 교회가 이주민 교우들과 상생하는 신앙 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이해와 목회 돌봄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B. 논지와 토론 (Thesis and Discussion)

이 연구의 목적은 A 교회를 출석하는 이주민 교우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를 토대로, 이주민을 환대하는 목회, 나아가 선주민과 이주민이 상생하는 교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환대 중심의 목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나는 다음 세 가지 점을 주목하며 연구를 진행해 갈 것이다.

첫째, 이주민들이 A 교회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이주민과 심층 면담을 통해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이 분석과정에 적용할 것이다.

둘째, 질적 연구 결과를 포스트 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다.

셋째, 그 결과와 해석을 기반으로 선주민 교우들과 이주민 교우들이 상생하는 신앙공동체를 제안하고 환대 신학의 관점을 통한 목회 돌봄의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C. 청중 (Audience)

본 연구의 청중은 세 영역의 사람들이다. 그 첫 번째 청중은 이주민 목회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주민 증가 추세에 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 이주민을 포함하는 목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목회 현장의 변화를 추구하며 모색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라 할 수 있다. 목회자라고 해서 누구나 이주민 교우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미국 교회 탐방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이주민 교우들에 대한 목회적 관심이 그리 많지 않았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주민의 증가 폭에 비해 교회에 출석하는 이주민은 소수이기에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주민 교우와 목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관심이 없기에 이주민 교우들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다. 그들에 관한 기사나 소식, 책, 논문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일도 없다. 이주민 교우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주민들과 함께 교회의 한 주체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에 한국 목회자들이 도움울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이 이런 현상들에 비판적 관점을 제공하고 이주민과 공존하는 목회적 구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두 번째 청중은 선주민 교우들이다. 고향을 떠나 국경을 넘어,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만나는 선주민들에게 요청되는 태도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용’과 ‘환대’다. 교회 안에서 관용과 환대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사람을 목회자로 제한할 수 없다.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가 서로 불편하더라도 상호존중하고 환영하는 관용과 환대의 정신을 학습해야 한다.

세 번째 청중은 이주민 교우들이다. 나는 이주민 교우들이 교회에서 겪는 경험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주변인이 아닌 주인 교우로 성장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주민들에게 경험 해석의 오류, 오해에서 일어나는 소외 경험, 억압 경험,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분노, 두려움, 절망의 감정들은 상호환대, 상호관용적 상생공동체로의 성숙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하여 이주민이 자기소외 의식을 극복하고, 선주민 교우가 가진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여, 마침내 선주민 교우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호돌봄의 주체가 되어 차이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 구성원이 되길 바란다.

D. 연구의 범위와 한계 (Scope and Limitation of the Project)

본 연구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A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도시라는 특성과 이주민의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교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밝힌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범위를 A 교회에 등록하여 6 개월 이상 출석하고 있는 이주민 교우로 제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을 연령별로 30 대에서 70 대까지 각각 2 명씩 10 명의 성인 이주민으로 한정하였다. 이주민 10 명이라는 적은 수를 연구한 것과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지 못했기에 모든 이주민 상황에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E. 독창성과 공헌 (Unique Features and Contribution)

이주민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다. 무수히 많은 기존 연구들 가운데 최근 10 년간의 기독교와 관련된 이주민, 다문화 자료들을 DBpia 에서 검색해 보았다. 검색해 본 결과 60 여 편의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주로 제목과 관련하여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수용의 문제, 이주민(다문화가정) 선교, 기독교 교육, 상담, 지역과의 협력 및 교회 역할 연구 등등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런 연구의 기여를 바탕으로 나의 문제의식에 관련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주민 교우들의 교회 안 차별과 피억압 경험에서 비롯된 소외와 고독감의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주제를 '환대적 목회 돌봄'의 구성으로 가늠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독창성과 공헌점을 말하자면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이주민을 주제로 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 연구들인 반면 이 연구는 이주민 교우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그 경험담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참여자 중심의 질적연구라는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심층 면담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학술적 이론을 바탕으로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존중, 환대의 방향으로 다가갈 것을 요청한다. 셋째, 이 연구는 한국 목회자들에게 이주민에 대한 목회적 방향성의 전환을 요청하며, 포스트 콜로니얼리즘과 환대 신학의 관점에서의 목회 돌봄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F. 사용할 용어 정의 (Difinition of Terms)

1. 이주민 (Migrant)

세계시민 모두는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 과정 중 하나가 범지구적 인구 이동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 다른 문화권으로 진출하여 살아가고 있다. 태어난 곳을 떠나 다른 문화권으로 진출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주민'이라고 말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이주민'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사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와서 사는 사람"[2]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나는 이 개념에 성경적 이해를 더하고자 한다.

구약성경에서 이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게르'(גר)이다. '게르'(גר)는 한국성경에서 '나그네', '객', '우거하는 자', '이방인', '타국인', 혹은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주민," accessed September 3, 2020,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9D%B4%EC%A3%BC%EB%AF%BC.

‘외인’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3] 게르는 땅도 없고 친척도 없는 이방 출신 이주민들로서 가난한 빈민층을 가리킨다. 그러나 게르 중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완전히 이스라엘화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본토인들과 영육 간에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도 했다. 예컨대 안식일 준수,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에 참여, 그리고 거룩한 성소에도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어 게르는 헬라어로 ‘프로셀뤼토스’(προσήλυτος)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는 이방인 중에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되려고 개종한 자를 의미한다.[4]

유대인 기준에서 보면 한국 선주민과 이주민은 이방인이다.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프로셀뤼토스’(προσήλυτος) 또는 ‘게르’(גר)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회는 이주민과 선주민으로 교우를 나누어 인식,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 정체성을 공동의 특성으로 이해하여 상호환대 공동체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서발턴 (Subaltern)

서발턴은 포스트 콜로니얼 이론의 개념어로 하층민, 하위주체, 종속계급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남성에 비해 여성, 자본가에 비해 노동자, 지주에 비해 농민, 제국주의 식민지배통치자에 비해 피식민지인, 그리고 선주민에 비해 이주민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권력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억압당하는 사람과 무리를 지칭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

[3]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vol. 23, no. 1 (June 2004): 512-13.

[4] 고광석, “다문화 선교를 위한 “이주민”의 성경적 이해와 선교적 적용,” *개혁논총* vol. 47 (September 2018): 100-04.

김혜란은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이 말하는 서발턴 개념에 따라 서발턴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나를 변호하거나 나를 옹호하기 이전에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규정해 놓음으로 그 목소리가 아무 소용 없는, 그래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바닥보다 더 밑바닥인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다"[5]고 말한다.

나는 이러한 관점으로 이주민을 서발턴으로 명명한다. 선주민은 이주민을 낯선 사람으로 인식한다. 이주민들이 자신들과 비교하여 피부색이 다르고, 한국말에 서투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주민을 보면서 한국 문화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으로 쉽게 규정한다. 그래서 이주민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주장을 하려 하면 선주민은 이미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린다. 더 나아가 그들의 불편한 호소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치부하거나 한국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벌어지는 해프닝 정도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다. 이주민의 목소리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도 이주민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주민의 목소리는 선주민 앞에서 공허한 외침이 될 때가 많다.

3. 에이전시 (Agency)

김혜란은 에이전시를 힘이 없는, 혹은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괄적인 모든 행위, 정책, 노력들이라고 이해한다.[6] 나는 이런 측면에서 이주민 교우에게도 에이전시가 필요하다고 보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에이전시라는 말은

[5] 김혜란, "Postcolonial Practical Theology: A Preaching Focus" (lectur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08/19/2020).

[6] Ibid.

흔히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대행하거나 주선하는 사람이나 회사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에이전시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역량 강화) 개념과 연결하여 이주민이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지하는 모든 행위, 정책, 노력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교회에도 서발턴 에이전시가 필요하다. 목회자의 목회 돌봄이 서발턴 에이전시와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목회 돌봄이란 목회자들이 교우들을 돌보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데, 특별히 이주민 교우들과 선주민 교우들의 다양한 대인관계들을 지원하며 교회 안의 소수인 이주민 교우들이 소외, 배제, 혹은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이주민 교우들을 관심 있게 돌볼 수 있어야 하겠다. 더 나아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그들이 자주적인 존재로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서발턴 에이전시의 기능을 고민하며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목회자가 행하는 목회적 돌봄의 행위나 구조를 서발턴으로서의 이주민을 임파워하는 에이전시로 이해할 때 이주민 교우들의 피억압 경험 등 부정적 상황이 극복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Ⅱ
질적 연구 방법과 절차
(Method and Procedur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A. 연구 방법 (Research Method)

나는 본 연구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을 선택하였다. 질적 연구란 무엇인가?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과 성격을 '질(質, quality)'이라 한다. 질적 연구는 탐구 대상의 '질(質, quality)'에 대한 연구이다.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 결과를 예측하고 도출하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질적 연구는 수량, 수치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적 연구가 수량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현실을 검증하는 연구라면 질적 연구는 탐구 대상의 내재하여 있는 의미 해석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려 하는 연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로 탐구하기 어려운 개별 연구 대상의 독특성과 맥락성, 즉 질에 대한 관심에 치중하여 접근하는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7]

질적 연구는 대다수를 대상으로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적 연구와 다르게 심지어 연구 참여자가 1 명일 수도 있을 만큼 소수의 특정한 사례들에 관심을 둘 수도 있다.[8]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의 목적에 대해 김영천은 질적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 의미와 이해라고 말한다:

>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토속인, 이방인,[9] 타인, 연구 참여자 등)이 자신의 사회 세계와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행위 하는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을 말한다.[10]

---

[7]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and 김한별,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18), 27.

[8] 김영천, *질적 연구방법론 I: Bricoleur 2nd*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126.

[9] 성경적 의미의 이방인은 비유대인들이고, 한국 상황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 김광기는 그의 논문 *사회학자, 현상학자, 그리고 이방인: 본래성의 추구자들에 관한 소고*에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이방인"이라고 말한다.

[10] 김영천, 116.

질적 연구는 연구자 자신의 경험과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한다.[11] 김영천은 질적 연구란 연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내부자적 시각"을 가지고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정황과 경험을 기술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한다.[12]

즉,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가 지니고 있는 경험, 감정, 태도 등을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감추어졌거나 소외된 진실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나는 이 연구에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질적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이다. 김영천에 따르면 현상학적 질적 연구란 "인간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체험을 바로 그 체험이게 만드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이를 통해 체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13]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인간 체험을 살피고 거기에 존재하는 본질적 요소와 구조를 밝혀내는 데 강점이 있는 연구방법인 것이다.

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각기 다른 이주민의 체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며, 그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핵심 범주를 분류하여 포스트 콜로니얼리즘과 환대 신학의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고 목회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1] 서근원,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시대의 삶과 문화와 교육, 그리고 질적연구* (파주: 교육과학사, 2013), 345.

[12] 김영천, *질적 연구방법론 I*, 116.

[13] Ibid., 90.

B. 연구 참여자 (Research Participant)

본 연구는 현재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하고 있는 A 교회에 출석하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심층 면담을 위해 나는 이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로동에 소재하고 있는 A 교회를 연구 교회로 선정하고, 이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심층 면담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A 교회 담임목사의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새 가족 담당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A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고, 6 개월 이상 지속해서 예배 출석을 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이주민 가운데 30 대부터 70 대까지 세대별 2 명씩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내용, 취지를 설명하고, 면담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 비밀을 보장하며, 당사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표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될 것이며, 필사된 후 본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설명하였다. 면담 내용은 내 개인 컴퓨터에만 암호화하여 저장하여 관리할 것이고 연구를 마친 후에는 해당 내용 모두를 파기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모든 사항을 안내한 후 심층 면담의 동의서를 받고, 받은 동의서는 프린트하여 사본으로 제공하였다.

면담 장소는 사전에 면담참여자가 심리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연구 참여자의 의사를 물어 선정하였다. 그 결과, 외부에서도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반 노출 개방형 문이 있는 A 교회 소그룹실로 면담 장소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면담 사전에 이 면담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질문에 응답할 의무는 없음과 불편한 질문은 거절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피면담자의 개인적 상황, 즉 건강 문제,

시간상이나 심리적 불편함, 관계상의 우려 등이 발생하여 면담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표현하고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모든 연구 과정은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윤리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기관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감독하에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아래 〈표 3〉은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개인정보를 위해 이름을 밝히지 않으며 나이 30 대부터 70 대까지를 기준으로 나열하였다.

〈표 3.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구 분	직 분	A 교회 정착기간
연구 참여자 A	성 도	1 년
연구 참여자 B	성 도	4 년 11 개월
연구 참여자 C	성 도	12 년
연구 참여자 D	성 도	1 년 7 개월
연구 참여자 E	성 도	2 년
연구 참여자 F	성 도	3 년 6 개월
연구 참여자 G	성 도	1 년 8 개월
연구 참여자 H	성 도	3 년 5 개월
연구 참여자 I	집 사	7 년 9 개월
연구 참여자 J	성 도	1 년 6 개월

(2020 년 12 월 1 일 기준)

C. 연구 절차 (Research Procedure)

나는 이 연구를 위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콜라이지(Paul F.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따랐다. 콜라이지(Paul F. Colaizzi) 현상학적 분석 방법은 이주민들의 경험이나 생각들을 광범위하게 도출해 내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 *질적 연구방법론*은 콜라이지 분석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콜라이지 분석 방법은 먼저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자료 전체의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개별적인 자료를 하나씩 재검토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끌어낸다. 그다음, 명확하게 밝힌 의미 있는 주제 및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하고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본질적이면서 포괄적인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14]

내가 연구에 사용한 콜라이지(Paul F. Colaizzi)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 면담 녹음내용을 기록하고 반복하여 읽는다. 둘째, 심층 면담 내용 가운데 연구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들을 끌어낸다. 셋째, 의미 있는 주제들을 묶는다. 넷째, 조사된 현상을 자세하게 기술한다. 다섯째, 분석과정을 통해 나온 본질적인 내용이고 포괄적인 구조가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유효성을 확인한다.[15]

자료수집을 위해 나는 A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30 대부터 70 대까지 연령대를 고려하여 세대별 2 명씩,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이주민 총 10 명을 선정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

[14] 신경림, 조명옥, and 양진향, *질적 연구방법이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125.
[15] 김영천, *질적 연구방법론 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107.

심층 면담이란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과 1 대 1 면담을 하는 형태로서, 서로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연구자가 내부자 적 입장에서 공감을 통해 파악하는 연구방법이다.[16] 김영천은 심층 면담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면담은 참여자들의 관점과 생활 세계, 의식, 주관성,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러우면서 동시에 목적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그리고 관찰이 어려운 상황(지나가 버린 사건과 기억)이나 연구 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17]

연구 간 면담은 연구자가 만든 가이드에 의해 면담을 진행하되 좀 더 풍성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이 피면담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반 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면담 가이드를 작성했다.

〈표 4. 심층 면담 질문내용〉

번호	질문 내용
1	교회에 출석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2	교회에 등록하여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선주민 교우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3	반대로 어려움이나 아쉬움, 불편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4	교회 소그룹(속회, 사역팀)을 통해 교회와 교우들에게 좋았던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16 김영천, *질적 연구방법론 IV: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562.
17 김영천, *질적 연구방법론 I*, 323.

5	반대로 교회 소그룹(속회, 사역팀)을 통해 교회와 교우들에게 어려움이나 아쉬움, 불편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6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 더 경험하길 원하거나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7	이주민으로서 선주민 교우들과 교회에 부탁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8	이주민들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이주민을 위해 어떤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9	교회에 대해서 선주민 교우들에게 자신의 불편함을 이야기 나누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심층 면담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요소 중의 하나는 '판단중지'이다.[18] 나는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편견이나 경향성을 배제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면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다음은 나의 선입견 배제를 위한 판단 중지 내용이다.

1. 이주민 교우들은 어떤 형태로든 교회 안에서 기존 교우와의 갈등과 차별, 소외를 경험하며 어렵게 적응했을 것이다.
2. 이주민 교우들은 한국어의 부족함으로 공감과 소통이 기존 교우들에 비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3. 이주민 교우들은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할 것이다.
4. 이주민 교우들은 선주민 교우들보다 교회 사역에 관심이 덜하며 봉사 활동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5. 이주민 교우들은 교회 리더로서의 위치가 약할 것이다.

[18] 김미영, *질적연구에서의 인터뷰* (서울: 현문사, 2013), 253.

6. 이주민 교우들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다.

7. 이주민 교우들은 기존 교우들의 관심을 부담스럽게 여길 것이다.

8. 이주민 교우들은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교회 안에서 쉽게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D. 연구 결과 및 분석 (Research Result and Interpretation)

심층 면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17 개의 의미 있는 진술로 파악하고 이것을 6 개의 주제로 나눠보았다. 6 개의 주제를 둘씩 묶어 3 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나는 이 3 가지 범주들을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왜냐하면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담론은 우리가 모르는 역사와 문화의 유산 속에서 콜로니얼리즘의 영향과 잔재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타자화되어 억압당하고 있거나, 혹은 억압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줌으로써, 우리 자신의 사회적 억압의 정체들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자기 이해를 형성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포스트 콜로니얼이란 지금까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 여겼던 것들 가운데 잠재된 콜로니얼리즘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을 명확히 인식, 비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김혜란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담론에 있어 "신앙을 형성하는 반복의 실천을 통해 몸에 밴 기억을 배양하는 일은 좋지만, 그러한 익숙하고 편안한 실천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떠오르는 새로운 이해를 가로막는 경우를 인식하는 일도 무척 중요하다"[20]라고

---

[19] 박충구, "탈식민주의 담론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이해," *신학과 세계* vol. 49 (March 2004): 201-02.

[20] HyeRan Kim-Cragg,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상호의존성: 포스트식민주의 여성주의 실천 신학,* trans. 이호은 (서울: 동연, 2020), 56.

말한다. 나는 A 교회 정착과정에 있는 이주민 교우들의 경험을, 포스트 콜로니얼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한국 교회와 사회, 그리고 일상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내용을 밝혀보고자 한다.

〈표 5. 자료 분석결과: 범주, 주제군과 주요진술〉

범주	주제군	의미단위의 요약
의존 성향	받는 것에 익숙함	1) 어느 곳보다 교회에 오면 환영받는다.
		2) 받는 것이 많아 좋다. (음식, 생필품, 선물)
	수동적 자세	3)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4) 잘해 주니까 잘 따라가게 된다.
		5) 봉사와 교회 활동에는 별 관심이 없다.
		6) 직분이야 받으면 좋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주)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나? 라고 자문한다.
억압과 무시	억압	7)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교회에 무조건 와야 한다고 말했다.
		8) 신앙생활 이해 5주 강좌를 꼭 참석해야 했다.
		9) 자기(선주민) 따라서 사역팀에 들어오라고 했다.
		10) 헌금과 십일조에 대해 강조했다.
	무시	11) "교포들은 이렇더라." 라는 등, 모든 교포를 일반화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12) 하고 싶은 것을 체크했더니 "이걸 다…" 라며 되물었다.
		13) 기분 나쁘게 위아래로 훑어본다.
소통의 어려움	예배 안에서 소통의 어려움	14) 한국말이 서툴러 설교를 못 알아들을 때가 많다.
		15) 신앙용어가 어렵다.

	소그룹 안에서 소통의 어려움	16) 대화 주제(관심)가 다르다.
		17)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는 게 좋다.

결과 1. 의존 성향 (Dependence)

심층 면담을 통해 나타난 첫 번째 범주는 '의존 성향'이다. 연구 결과 6 개월 이상 A 교회에 출석한 이주민 교우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 요소가 많아 계속 출석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대부분 A 교회가 자신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받는 것이 좋다" 라는 말이었다. 교회 공동체가 일반 사회보다 더 많은 환대와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 A]
이주민이어서 더 살갑게 대해 주시는 거 같아요.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사회에서는 받을 수 없는 대접이에요. 속회 나갈 때마다 이것저것 남는 건 다 싸주시고....

[연구 참여자 C]
처음 왔을 때, 많이 환영해 주시니까 적응하기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D]
가족도 없이 남편을 먼저 보내야 했어요. 장례식장에 올 사람도 없었는데.. 그때 교회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려주시고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교회에 다니면 이런 게 좋은 거구나.. 큰 힘이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E]
새 가족 등록하고 교육 마지막 날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축복해 주셨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극진히 대해 주겠어요? 교회에 좀 더 일찍 올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 참여자 G]
아픈 어머니 모시고 교회에 오면 이동하는데 다 도와주고, 좋은 자리 내주고, 예배 마치고 맛있는 식사도 주고 지극 정성으로 다 이렇게 잘해주니까 교회가 좋지요.

[연구 참여자 H]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받는 걸 좋아해요. 누가 뭘 주면 많이 기뻐하죠. 공짜로 얻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만 한국 교회 중에 교회 가면 교회 왔다고 돈을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많이 가죠. 돈을 주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걸 바라고 00 교회 다녔었어요.

심층 면담을 통해서 나는 교회에 등록한 이주민 교우들이 교회와 선주민 교우들의 환대를 통하여 경제적, 관계적, 정신적 측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인 환대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것은 수동적인 자세와 의존적인 성향의 모습이다. 연구 참여자 A, D, G 는 A 교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 A]
속장님이 너무 잘하세요. 저는 조용히 따라가기만 하면 돼서 별 어려움 없어요.

[연구 참여자 D]
교회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속장님이 하자는 대로..

[연구 참여자 G]
속장님 늘 의지하죠. 도움을 많이 주시니까.. 뭘 물어보면 친절하게 다 대답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다 보니 속장님과 전화를 많이 하게 돼요

이주민 교우들은 속장들을 의지하는 성향을 보였다.[21] 속회 리더들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

[21] 이하 속회 리더라고 표기함.

A 교회는 이주민 새 가족 교우를 돌보는 속회 리더가 따로 세워져 있다. 이주민 교우에게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유와 은사를 가진 훈련된 리더(속장)들이라고 한다. 처음 A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할 때부터 이주민 교우는 이들과 연결되어 일대일 돌봄을 받는다. 정해진 속회 리더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5 주간의 신앙생활의 이해를 수강하는 동안 이주민 새 가족 교우들은 자연스럽게 속회 리더와 교제하게 된다. 속회 리더로부터 교회 곳곳을 안내받고 몇몇 선주민 교우들을 소개받는다. 함께 간식을 나누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한다. 그렇게 5 주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난 후 이주민 새 가족 교우는 그 속회 리더가 담당하고 있는 속회에 배정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주민 새 가족 교우는 교회와 속회 조직 안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된다.

시작부터 이주민 새 가족 교우는 속회 리더의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받는 것에 익숙해진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 새 가족 교우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속회 리더를 찾게 되고, 속회 리더의 도움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해결되다 보니 속회 리더를 의지하는 성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주민 새 가족 교우를 섬기는 속회 리더는 이주민 새 가족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고 무조건적인 환대를 베풀도록 훈련받았다. 그러나 그 무조건적인 환대가 결과적으로 이주민 교우를 주체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의존적 객체로 머물게 하며 수동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원인 중 하나로 이주민 교우들은 교회 안에서 사역과 봉사하는 일, 나누고 섬기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C, F, H 는 봉사와 사역에 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 C]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건 생각도 못 해요. 시간도 없고..

[연구 참여자 F]
사역 별로 관심 없어요. 꼭 뭘 해야 하나요?

[연구 참여자 H]
주일에도 장사해야 해서 교회 활동이 어려워요

연구 참여자 열 명 중 사역팀에 들어가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이는 한 명이었다. 그마저도 속장의 강권에 의해서였다. 나머지 아홉 명은 예배 외에는 사역과 봉사하는 일에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여하기 어렵거나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A 교회는 1 인 1 사역을 지향하고 있다. A 교회에 등록한 모든 사람은 은사 교육과정을 통해 교회 사역팀을 소개받고 자신의 은사를 고려하여 할 수 있는 사역과 봉사를 선택해간다. 물론 모든 교우가 1 인 1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주민 교우들에게 있어서 1 인 1 사역이 선주민 교우들보다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주민 교우들은 교회의 일꾼인 직분에 대해서도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직분이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먼저 이주민 교우들의 면담 결과 그들은 직분자로 임명되기를 원하면서도 직분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스스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 A, E, F, H 의 직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들이다.

[연구 참여자 A]
직분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연구 참여자 E]
직분 받으면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권사님들 하시는 거 보면 저는 아직…

[연구 참여자 F]
받으면 좋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직분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를 위해 하는 것도 없는데..

[연구 참여자 H]
한국말도 잘 못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직분을 받겠어요..

그들은 직분도 없이 계속 교회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여전히 수동적이고 의존 성향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다른 이들 앞에 주도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교회에서 자신의 주체적인 모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별 탈 없이 순응하면서 주변부에서라도 이 정도의 환대로 만족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결과 2. 억압과 무시 (Oppression and Neglect)

심층 면담을 통해 나타난 두 번째 범주는 '억압과 무시'이다. 이주민 교우들은 대부분 1 차 심층 면담에서 교회 안에서 느껴지는 차별은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 연구 참여자 B, C 는 교회 안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응답했다.

[연구 참여자 B]
차별받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G]
사회에서 일할 때 차별 많이 받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요. 일은 우리가 더 많이 하는데 우린 적게 받고... 사회에서는 그런 차별이 심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래도 다 하나님 자녀라고.. 똑같이 대접받는 건 아니더라도 사회보다는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사회에서 차별을 많이 경험한 이주민 교우들은 상대적으로 교회가 사회보다 차별이 덜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인 평가일 뿐, 교회 안에 차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현선은 완다 리(Wanda M. Lee)의 글을 인용하여 차별이란 "어느 한 그룹이 다른 한 그룹에 대하여 선호도를 달리하여 행동을 취할 때 나타나는 것"[22]이라고 하였다. 선주민 그룹이 다른 한 그룹, 이주민 그룹에 대해서 선호도 자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다름을 부적절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취할 때 차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현선은 '내면화된 억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차이를 차별화하려는 폭력성은 억압집단의 자본과 권력이 크면 클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화가 일어나 그 결과로 차별받는 집단의 성원들마저 차별적 신념을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를 '내면화된 억압(internalized oppression)' 이라고 한다."[23] 식민주의는 식민 질서 내에서 피식민지인들이 그들의 열등한 지위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의식의 식민화와 영속화를 이루어낸다.[24]

차별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면화된 억압으로 인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체 억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2차 3차 심층 면담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불편했던 경험과 강요받았던 경험들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질문하였다. 그 결과 1차 때와는 다른 경험들을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사회에서처럼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주민 교우들을 향한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주민 교우들의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찾아낼

---

[22] Wanda M. Lee,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Counseling* (Philadelphia: Accelerated Development, 1999), 12, quoted in 오현선, *기독교 다문화교육: 다름·다양성·관용* (서울: 꿈꾸는터, 2014), 151.

[23] 오현선, *기독교 다문화교육: 다름·다양성·관용*, 153.

[24] John Mcleod, *Beginning Postcolonialism 탈식민주의 길잡이*, trans. 박종성 et al.,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37.

수 있었다. 다음은 2, 3 차 심층 면담을 통해 서운했던 경험, 부담스러웠던 경험, 강요받았던 경험을 추가로 물은 뒤에 응답했던 연구 참여자 B, E, G 의 경험담이다.

> [연구 참여자 B]
> *사역팀을 정하는 데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속장님이 "그냥 나랑 같이 새 가족 사역팀 하자. 내가 그렇게 말해 놓을께" 라고 해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새 가족 사역팀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
> [연구 참여자 E]
> *전도하는 분이 내가 좀 생각해 보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생각해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나가는 건 내 자유인데.. 늘 볼 때마다 내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1 년간을 그렇게 그분과 실랑이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왔더니 또 무조건 5 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헌금도, 십일조도 무조건 내라는 거에요. 축복받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린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돈을 내라고 그러니...*
>
> [연구 참여자 G]
> *동생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일요일도 또 뭐 구역 모임이 있어서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매일같이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말했죠. "먹고 사는 게 급한데 그럼, 일은 언제 하느냐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길이다." 라고요.*

위와 같은 진술들을 들으면서 나는 선주민 교우들의 문화적 우월감과 자신들의 신앙의 방식이 절대적이라는 확신 때문에 나타나는 강요와 억압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차 심층 면담 때와는 다르게 2 차, 3 차 심층면담에서 이주민들에게 부담과 분노, 반감 등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은 무시 받은 경험에 대한 연구 참여자 B, E, H 의 진술이다.

> [연구 참여자 B]
> *한번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교우님들이 교포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포들은 다 그래, 모두가 다.. 모든 교포들이 다 그런 것처럼 말했어요. 다 그러지는 않는데.. 저 또한 교포로서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구 참여자 E]
은사 교육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체크하라고 해서 이것저것 몇 가지 체크했더니 은사팀의 어느 분이 "이거 다 하고 싶은 건가요? 되물으시더라고요. 그게 당황스럽고 속상했어요. 저도 남들처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래서 솔직하게 하고 싶은 거 다 체크한 건데 그런 질문 받으니까 "내가 뭘 잘못 체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역팀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연구 참여자 H]
제 말의 억양이 이상해서 그랬는지 기분 나쁘게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2 차, 3 차 심층 면담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주민 교우들은 교회 안에서 차별과 강요, 억압과 무시, 선주민 교우와의 갈등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결과 3. 소통의 어려움 (Difficulty in Communication)

심층 면담을 통해 나타난 세 번째 범주는 '소통의 어려움'이다. 교회에 출석하는 이주민 교우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언어와 문화 차이다. 이주민들이 한국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약자 아닌 약자의 위치에 놓일 때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다수자의 입장, 선주민의 입장에 있는 교인들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는 "한국 교회에 왔으니 한국 사람과 같이 되어라"라며 이주민이 한국 문화에 동화되기를 일방적으로 바라는 것이 보통이다. 선주민은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고 하거나 이해하기 위해 다가서기보다는 이주민의 일방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화적 동질화의 추구는 이주민에게 한국의 주류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한국의 언어를 사용하며 주류사회에 완전히 동화되기를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은 자신의 모국어와 문화,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게 된다.[25] 현실적으로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이주민들이 이주국의 주류문화와 함께 그 언어에 완전히 동화되기는 쉽지 않다. A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주민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 A, E, H 의 소통에 관한 면담 내용이다.

> [연구 참여자 A]
> *예배 시간에 설교를 다 알아듣지는 못해요. 아직 한국말이 서툴거든요.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
> [연구 참여자 E]
> *여러 언어가 불편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라든지.. 담임목사님께서 간혹 영어를 사용하시잖아요. 영어를 사용하실 때면 더 모르겠어요. 어려운 단어들도 아직까지는 많고..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해도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 좋게 예배드리고.. 또 모든 것 다 잊고 이야기 듣고 있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
> [연구 참여자 H]
> *새 가족 교육을 받는 데 쓰는 말이 너무 생소했어요. 성경책의 말(언어)도 그렇고.. 교회에서만 쓰는 말들이(신학적인 용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주민 교우들에게 완벽한 한국어 이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주민 교우들은 강의와 설교내용을 들으면서, 간혹 어려운 신학 용어나 외국어(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전문 용어 등이 나올 때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예배나 강의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이나 교우들 간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연구 참여자 A, C, E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25] Stephen Castles, Hein De Haas, and Marc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2003), 54-6, quoted in 김성호,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다문화사회복지의 과제: 평등을 지향하는 공정한 환대의 실천,” *기독교사회윤리* vol. 36 (December 2016): 41.

[연구 참여자 A]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저 "네~"라고 대답만... 그러다가 속장님이 "못 알아들은 거 같은데..."라고 하면 그것도 "네~"라고 대답해요. 솔직하게. 그러면 다시 설명해 주시거나, 바쁠 때에는 "그냥 넘어가자"고 말할 때도 있어요.

[연구 참여자 C]
대화 주제가 달라요. 우리는 보통 자기가 하는 일(직업)에 관해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한국 교우님들은 여행이나 맛집, 여러 가지 별의별 주제로 이야기 많이 해요. 관심 갖는 게 우리랑 달라요. 이야기 주제가 맞지 않으니까 할 말도 별로 없고.. 대화가 자주 끊겨요. 그래서 몇 번 나가다가(소그룹) 안 나가게 됐어요.

[연구 참여자 E]
제가 어떻게 한국 분들한테 이런 말(불편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하면 오히려 제가 이상해지거나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 넘기는 것이 더 나아요.

소그룹 모임에서 선주민 교우들이 배려와 환대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주민 교우들은 선주민 교우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언어, 생활 경험, 경제적 수준 등이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의 말을 하고 싶어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관계가 멀어지거나 무시당하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말하지 않는다는 이주민 교우도 있었다. 더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자신의 목소리를 뚜렷이 낼 수 없는 서발턴의 모습이 이주민 교우의 고백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나는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 나는 질적연구의 결과를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이론으로 해석하며 A 교회 안에 나타난 이주민 교우들의 목회 돌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토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Chapter Ⅲ
포스트 콜로니얼 관점에 따른 질적연구의 결과 해석
(A Postcolonial Interpret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A.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Postcolonialism)

콜로니얼리즘(식민주의)은 제국의 요소들이 식민국가에 전해지는 것으로, 특별히 식민국가의 여러 요소를 부정하고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는 반면 자신들의 요소는 우월하다고 여긴다.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는 말은 식민화 과정의 시작에서부터 정치적 독립을 위한 투쟁을 거쳐, 독립을 성취하고, 현재의 신식민주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 지어낸 용어다.[26] 김혜란은 "우리는 포스트 식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전치사 포스트(post)는 식민주의의 종식과 동시에 현재 지속, 연장 중(continual)임을 역설적으로 지칭하고 있다"[27]라고 말한다. 쉽게 말해서 식민지 시대가 끝난 지금도 정치, 문화,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콜로니얼리즘의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잔재들을 깨닫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스스로 식민주의적이거나 제국주의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 A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런 강압적이고 억압적 요소들을 아이리스 매리언 영의 '억압'의 개념을 활용하여 찾아내고, 비판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공정한 환대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26]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eds. *The Postcolonial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1995), 2, quoted in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서울: 대한기독서회, 2012), 57.

[27] 김혜란, "Postcolonial Practical Theology: A Preaching Focus"

1. 차이의 정치와 정의(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정복을 통한 강제 주입을 억압이란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28] 영은 이 억압을 다섯 가지 개념으로 정리한다. 첫째, 억압은 타자의 권력을 자신에게 이전하는 착취다. 영이 말하는 착취는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의 능력을 무상으로 착취하는 노동 착취뿐만 아니라 타자의 성적-정서적, 젠더 착취까지도 어떤 형태로든 착취가 가능하다고 말한다.[29] 착취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형태로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나타나는 의존 성향은 결국 잘 모르는 데서부터 오는 두려움이나 도움을 받고 싶은 심리로 인해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속회 리더나 선주민 교우를 의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데서 나타난다. 스스로 내려야 할 결정을 선주민 교우에게 맡겨버리고 선주민 교우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역할에 만족하다 보면 처음에는 편하고 그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결정권을 선주민 교우에게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연구 참여자 B 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 [연구 참여자 B]
> *사역팀을 정하는 데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속장님이 "그냥 나랑 같이 새 가족 사역팀 하자. 내가 그렇게 말해 놓을께"라고 해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새 가족 사역팀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평소 속회 리더의 도움을 받아왔던 연구 참여자 B 는 사역팀을 선택할 때에 선주민 속회 리더의 권유로 새 가족 사역팀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B 를 보호하고, 돕고 싶은 마음에서

[28]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trans. 김도균 and 조국 (서울: 모티브북, 2017), 106.

[29] Ibid., 124.

선주민 속회 리더는 자신과 함께 같은 곳에서 사역하기를 권유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 B 는 자신의 권한을 빼앗겨 버렸다. 결국, 선주민 속회 리더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연구 참여자 B 는 착취를 당한 것이다. 나는 연구 참여자 B 를 통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착취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억압은 타자를 주변인으로 만드는 주변화다.[30] 이는 유색인종이나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소수집단을 주변인으로 여겨 그들을 중심으로부터 멀리 두고, 심지어 그들의 기본적인 자격을 박탈하기까지 한다. 연구 참여자 D 와 I 는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 [연구 참여자 D]
>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해서 찬양팀에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성도님들이 좀 불편해하신다거나 저 같은 사람이 굳이 왜 나서서 그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좀 서운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
> [연구 참여자 I]
>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주는 게 도움 주는 거죠. 가끔 교회 안에서 무언가 나누고 싶기도 하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막상 뭘 해보려고 하면 힘도 없고, 실수할 것 같고 남한테 피해 줄 것 같아 망설이게 돼요. 괜히 하겠다고 나섰다가 잘못될까 봐.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사하기보다는 그냥 기도로 함께할 때가 많아요.*

연구 참여자 D 와 I 의 2, 3 차 심층 면담을 통해 나는 이주민 교우가 교회 활동에 매우 조심스러운 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과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민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누구나 낯선 환경에서는 모든

---

[30]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31.

것이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주민 교우들은 선주민 교우들의 불편한 시선과 반응 등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주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나는 연구 참여자 D와 I의 경험을 통해 선주민 교우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의도치 않게 타자를 주변인으로 만드는 주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억압은 전문직 노동자보다 비전문직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무력함이다.[31] 이는 비전문직 노동자들이 앞서 말한 착취를 당하는 것에 더하여서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자율적이지 못한 무력함에 빠져 헤어 나올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 A와 D는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무력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연구 참여자 A]
> *저는 어려서부터 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본토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했었는데 한국에 와서도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 온 지 얼마 안 되고, 언어에 아직 서툴러서... 교사로 봉사하고 계신 속회 집사님에게 살짝 물어보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조금 더 교회에 적응하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우리 교회 교사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아닌 거 같아서 한숨이 절로 나와요.*

> [연구 참여자 D]
>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찬양팀이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찬양 팀원 모집을 할 때 지원을 했었는데 한국어 발음이 부정확해서 곤란해하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실망이 컸고,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발음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책감이 크게 들었어요.*

나는 연구 참여자 A, D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언어의 한계로 인해 교회학교 교사 또는 찬양팀으로 봉사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과 상황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

[31]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37.

있었다. 언어와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한 무력감을 통해 이주민 교우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상실감과 박탈감,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주민 교우들이 경험하는 무력감은 단지 무력감을 느끼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주민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무력감을 극복하고, 자신들 역시 선주민과 동일하고, 평등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목회 돌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억압은 지배 집단의 문화를 보편화하여 다른 문화들을 열등하고 표준이 아닌 잘못된 것으로 취급하는 문화 제국주의다.[32]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들을 저평가하며 선주민 문화를 수용하기를 강요하는 것을 뜻한다. 연구 참여자 F 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 [연구 참여자 F]
> *처음 교회 왔을 때, 한국말이 서툴러 반말을 하곤 했는데 "존댓말 써야지"라는 말을 듣곤 했었어요. 한국 문화가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존댓말을 사용하는게 너무 어려웠어요. 언제 누구에서 써야 하는지... 호칭도 어떨 때는 자기들끼리도 '집사님, 권사님' '님'자 붙였다가 어느 때는 '야'라고도 했다가... 서로 반말하다가도 존댓말하고 너무 헷갈렸어요. 존댓말과 호칭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도 좀 안 좋았던 경험이 있어요.*

나는 연구 참여자 F 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주민 교우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 제국주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유교 영향과 가부장 풍토에 영향을 받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문화가 마치 표준이 아닌 잘못된 것으로 취급당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교회 공동체가 이주민 교우에 대하여 문화의 차이와 다름으로 인한 현상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황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

[32]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42.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를 통해, 이주민 교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화 제국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는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평등과 상호존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억압은 집단이 경험하는 체계적인 폭력이다.[33] 이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교회라는 특수한 집단 안에서 선주민 교우들은 이주민 교우들보다 믿음이 좋은 편이라는 우월감으로 자꾸 가르치려 하고, 강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G 는 자신이 경험한 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연구 참여자 G]
> *사실 저는 새벽부터 일을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예배를 제외한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물론이고 새벽예배 참석은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항상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야 성실한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속장님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죄책감이 많이 들어요. 지난번에는 한 권사님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참석도 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생각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감정도 상하고 참 답답하기도 했어요.*

나는 연구 참여자 G 가 교회에 소속되어 공예배에 참석하는 문제로 인해 경험한 언어와 감정에 대한 폭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E 또한 자신이 경험한 폭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연구 참여자 E]
> *전도하는 분이 내가 좀 생각해 보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생각해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나가는 건 내 자유인데.. 늘 볼 때마다 내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1 년간을 그렇게 그분과 실랑이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왔더니 또 무조건 5 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헌금도, 십일조도 무조건 내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린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돈을 내라고 그러니...*

---

[33]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46.

연구 참여자 E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주민을 전도하는 데서부터 선주민 교우들은 "무조건 교회 나와야 한다"라고 강요한다. 정해진 대로 모든 교우를 획일화시키려는 듯,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해야만 한다고 말하거나, 십일조는 꼭 해야 축복받는다며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 5주간의 신앙생활의 이해가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처음 이 과정을 소개받을 때 꼭 수료해야만 정식 교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경험담도 있었다. 나는 선주민 교우들이 진리라고 믿고,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강조했던 것들이 이주민 교우들에게는 부담이요 억압이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심층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억압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제국주의의 현대 역사는 성별, 경제적, 정치적 억압이 서로 연결되어 아직도 진행 중이며, 탈식민 시대임에도 우리는 때때로 식민을 하는 자들이요 동시에 식민을 당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34]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억압했거나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사회는 일제강점기나 서구 문물에 의한 식민주의의 피해자로만 있지 않다. 우리 또한 식민주의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억압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억압하고 있는 대상을 찾고, 그들에게 행하고 있던 억압을 끊어내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자세가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도 억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 체제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김혜란은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정의는 힘의 문제이다. 힘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정의와 부정의가 정해지게 된다. 힘을 잘 분배해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35]

---

[34]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58.

[35] 김혜란, "Postcolonial Practical Theology: A Preaching Focus"

정의를 실현해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억압과 부정의가 일어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힘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의 중요한 기구(기관, 사역팀, 속회조직)의 리더들은 대부분 선주민 교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주민 교우들은 교회 요직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아예 직분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힘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억압과 부정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김혜란이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또한, 정의는 정체성의 문제이다. 차이와 다름으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상생하려고 할 때 억압의 문제, 부정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36]

김혜란은 정의의 문제를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짓는다. 차이와 다름이 차별로 드러나게 될 때 정의는 사라지고 억압과 부정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교회의 이런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 김혜란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상생하려 노력하는 '상호의존성'을 주장한다.

2.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

우리 안에 실제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김혜란은 "상호의존성"을 제시한다. 상호의존성이란,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억압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배우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의존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37] 상호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상호 의존함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쉽게 말해,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여

---

[36] 김혜란, "Postcolonial Practical Theology: A Preaching Focus"
[37] Ibid.

자라나듯, 사람의 온전성은 공동체 안에서 오직 타자를 의지함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다.[38] 강남순 또한 “한 개인이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의존적 단계(dependent), 독립적 단계(independent)를 거쳐 상호의존적 단계(interdependent)로 나아가야 한다”[39]라고 말한다. 더 온전해지기 위하여, 진정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아야 한다. 권진숙은 관계 문화 이론의 개념에서 “관계의 가장 중요한 내적 함의는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관계’”[40]라고 말한다. 성장을 촉진시켜 주는 상호 관계를 맺을 때는 서로에게 열려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 즉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두 사람이 서로 상호적으로 지지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41] 인간(人間)이라는 한자 어원을 풀이한 것과 같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이다.[42] 따라서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이들이 필요함을 받아들여야 하며 서로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만든다. 다양한 지체가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주를 바라보며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된다. 다시 말해 교회의 생명력은 다양성의 통일이다. 나와 다른, 다양한 지체들을 인정하고 용인하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성숙이고 또한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가는 과정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아픔,

---

38 Kim-Cragg, *Interdependence 상호의존성*, 33.

39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파주: 동녘, 2017), 42.

40 권진숙, *관계 문화 이론*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3), 48.

41 Ibid., 48-9.

42 Kim-Cragg, 65.

성공과 성취,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며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함께 상호 의존성을 더 강조하고 배워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이시다. 올바른 관계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 취약한 사람, 약한 사람, 타자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시다.[43] 교우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각 지체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특별히 약한 지체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에는 놀라운 시너지가 생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체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보호받아야 할 지체들이 누구인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부류가 어떤 부류인가? 그들은 바로 아주 연약하고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우리의 지체로 인정하고 상호의존적 존재로 인정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B. 공정한 환대 (Just Hospitality)

1. 공정한 환대 (Just Hospitality)

신약성경에서 환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필로크세니아'(φιλοξενία)로 '낯선 자를 사랑함'이란 뜻이다.[44]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낯선 자들과 동역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환영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환대의 삶을 기뻐하신다. 레티 러셀은 환대라는 단어 앞에

---

[43] Kim-Cragg, *Interdependence 상호의존성*, 66-7.
[44]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48.

‘공정한(Just)’이라는 형용사를 붙여 놓았다. 레티 러셀이 환대 앞에 ‘공정한(Just)’이란 형용사를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 김혜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환대는 낯선 이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낯선 이들의 인격이나 존엄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환대가 실제로 제국주의적으로 가진 자들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일에 오용되었던 경우가 있기에 의도적으로 환대 앞에 ‘공정한(Just)’이라는 단어를 래티 러셀(Letty M. Russell)은 덧붙여 사용했다.[45]

환대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환대에 내재하여 있는 공정함이 드러날 때 나와 다른 타자를 분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러셀은 공정한 환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공정한 환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쪽 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치료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이를 넘어서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의 환영하심을 실천하는 것이다. 위기에 빠진 이 세상에 치유와 정의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가담하기 위해서 차이를 넘어서 연결함으로써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다.[46]

공정한 환대를 이루기 위해 차이를 넘어서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환대를 실천하며 살아야 했지만, 역사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러셀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우리는 때때로 서로 낯선 자가 되지만,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는 차이가 아니라 종종 그 차이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점이다. 차이를 두려워하는 것은 심지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다른 국적, 인종, 성별, 성향, 혹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는 핑계로 악용하여 왔다. 불행히도 교회들이 차이로부터 ‘안전히 보호된 항구’ 노릇을 하고, 어떤 그룹들만을 환영하고, 안 어울리는 불순응자들을 배척하는 데 신학적 가르침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이런 두려움과 배척을 강화해왔었다.[47]

---

[45] 김혜란, “Postcolonial Practical Theology: A Preaching Focus”

[46]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156.

[47] Ibid., 50.

이제라도 교회는 차이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배척의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 인간의 정체성에 있어 서로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지만, 차이를 문제 삼아 남을 억압하고 침묵시키고 배제하고 업신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각기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차이와 다양성을 통해 이 땅을 공정하고 아름답게 구성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우리는 차이를 통해 남을 차별하고 억압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며, 반대로 소외되고 업신여김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도 아니다. 서로의 다름을 통해 조화를 이루며 상호 의존적 상생의 모습으로 이 땅을 공정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존재인 것이다.

교회도 다양성이 존재한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차이와 다름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차이가 '다름의 인식'이 아닌 '차별'로 이어지게 되면 그곳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서로의 다름을 부정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러셀은 기독교 신학적 성경적 전통들까지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48] 우리가 이미 지켜왔고 경험해 왔던 기존의 모든 신학적 성경적 전통과 신앙의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러셀은 이 세계의 식민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 우리는 모두 식민주의 역사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49] 그 흔적을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

[48]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73.
[49] Ibid., 58.

관점으로 분석하고 제국주의의 지속적인 영향들에 대해 깨어 저항하게 하며, 새로운 재창조의 시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정한 환대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50]

2. 환대 신학적 에이전시로서의 교회 (The Church as an Agency of Hospitality)

출애굽기 22 장 21 절에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이주민으로 살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430 년간의 이주민 생활을 한 역사를 기억하며,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은 신명기에도 나타나고 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 장 19 절)

21 세기 한국 교회 기독교인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 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뿐 아니라,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이주민을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환대 전통에도 불구하고, A 교회에서 발견하였듯이, 기독교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방인을 타자화하는 식민사상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말하는 환대 사상은 한국 교회가 성찰할 지점을 제공하고 있다. 환대란, 차이에서 비롯한 차별을 극복하고 선주민과 이주민 기독교인 간의 상호존중과

---

[50] 김혜란, "Postcolonial Practical Theology: A Preaching Focus"

상호평등을 지향하고 실천하기를 요청하는 말이다. 이주민을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려 하고, 선주민의 시혜적 태도에 기반한 나눔에 그친 사회봉사는 한국 교회가 더 성찰해야 하는 지점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주민 교우들은 현재 교회 안의 '서발턴'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의 한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도와야 하는 대상으로만 이주민을 바라보는 태도는 그쳐야 한다. '나는 더 나은 존재이고, 우월한 존재이니 내가 불쌍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선한 얼굴을 가장한 차별주의자요, 현대에 이식된 식민주의자들의 관행이요 태도라 할 수 있다.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말하는 환대는 단지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수준의 개념이 아니다. 식민주의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과 필요를 제공하는 대상이 맺은 관계를 영구화하는 시도인 반면, 포스트 콜로니얼 관점의 환대는 평등과 존중의 상호적 관계를 전제로 실현되어야 하는 가치로서 식민주의를 전복하고 재구성하는 변혁적 개념이다.

이주민 교우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다. 교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다. 선주민, 이주민, 교회는 모두 함께 하는 유기체이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몸이라면 우리는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장기들이다. 크든 작든 모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장기들을 연결하는 선들이 있다. 가만히 보면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어지러워 보이는 선들이지만, 이 선들은 각각의 장기들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로 묶어주며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하여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연결선 없이는 각각의 장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에이전트는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서로 잘 연결하여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교회가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교회 안에는 선주민과 이주민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평등과 존중을 지향하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적인 환대를 통하여 서발턴과 같은 이주민 교우들이 좀 더 자주적인 모습으로 교회 주축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선주민 교우들과 연결되어 함께 상호의존적 모습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에이전트가 교회 안에 구축되어야 한다.

3. 평등 관계를 지향하는 힘의 분배 문제 (Quality and Distribution of Power)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사고에 기반한 교회 공동체는 다르다는 점들이 차별의 요소로 작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교회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사회는 세계화, 글로벌화, 다문화화로 변화하고 있는데 교회는 과연 이주민 교우를 평등사상이나 인권 의식을 가지고 포용하며 공존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화 속에서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무시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이주민을 포용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주민을 바라볼 때, 이주민은 인종, 종족, 국적, 언어, 성 등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를 넘어서 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한 인격과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처받기 쉬운 취약성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성경은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대할 것을 말한다. 이주민을 의미하는 "거류민"과 "타국인," 그리고 선주민을 의미하는 "본토인"과 "너희의 형제"에 대하여 서로 다르지 않게 법을 적용하라고 한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레위기 24:22 개역개정)"
"내가 그 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신명기 1:16 개역개정)"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실정법이나 교회법 등은 이주민을 평등하게 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 참여자들의 직분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연구 참여자 열 명 중 한 사람만 집사 직분자일 뿐, 나머지 아홉 사람은 직분자로 임명받지 못했다. 직분은 직무상의 본분,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가리킨다. 교회는 직분에 따라 지켜야 할 직무 사항들이 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해야 할 본분이 있는 것이다. 직분자가 아니라는 것은 교회 안에 일꾼으로 봉사 또는 임무나 직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이주민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들을 직분자로 임명하지 않았다. 신앙생활의 연수에 따라 직분을 임명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선주민들이 직분자로 임명받는 기준을 볼 때, 이주민이 직분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보면 집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③ 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51]

이 교리와 장정의 기준은 선주민 교우나 이주민 교우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주민 대부분은 직분자로 임명받지 못했다. 이주민 교우들이 선주민 교우들에 비해 자격이 부족해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은연중에

---

[51] 신경하,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2007), 68.

이주민을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겉돌게 하는 것이다.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그들은 점점 더 중심에서 배제되고 억압당하는 서발턴으로 고착화된다.

직분을 받아보면 어떠냐는 질문에, 그들은 대부분 손사래를 치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직분을 받고 싶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받을 수 있으면 좋죠. 다른 사람들(선주민)은 다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불리는데.."라며 직분을 받고자 하는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나는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에 실제적인 동등함을 중시해야 한다. 이주민 환대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서는 이주민에게 선주민과 동일한 법을 적용하여 의무와 권리들을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실효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즉, 이주민에게 교우로서 존재의 안정 기반인 '자리'와 이 자리에 결부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부여해야 할 것이다.

김현경은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회 안에 자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52] 그러므로 환대란 낯선 이방인이나 나그네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들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자리를 내어 준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합당한 권리들을 준다는 의미이며 자신들의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환대란 자리가 없던 사람들에게

[52]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 193.

자리가 주어짐으로써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권리가 없던 자들에게 권리를 회복시켜 그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53]

이주민이 새로운 곳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요청되는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며 그들의 삶이 왜곡되지 않도록 돕는 환대적 에이전시가 필요하다. 이주민 교우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체적인 자신의 위치를 찾아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도력과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힘을 잘 분배해야 할 것이다.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회 중대 결정에 참여 기회에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제약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해석의 결과로 다음 장에서 선주민 교우들과 이주민 교우들이 상생하는 신앙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주민 교우가 주관하는 성찬 예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53]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207-08.

Chapter Ⅳ
이주민 교우 주관 성찬 예배
(A Sacrament Service Organized by Immigrant Alumni)

A. 이주민 교우 주관 성찬 예배 기획 (A Sacrament Service Planned by Immigrant Alumni)

태혜숙은 그의 저서에서 서발턴(Subaltern)이라는 단어에서 '서브(Sub)'는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우리를 존재케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를 뜻한다고 말한다.[54] 전 지구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주민과 함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다름으로 인해 분열되고 흩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일치하는 모습으로 화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을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로 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맞이하고 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국인 이주민에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명령에 따라 절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

>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민수기 9:14 개역개정)"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선주민이든 이주민이든 동일하게 그 규례와 율례가 적용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례를 받은 모든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주민 교우들도 율례와 법도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

[54]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1), 117.

연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주민들은 언어의 문제, 소통의 문제, 서발턴의 모습 때문에 예배 안에 자신을 능동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주변부에 위치하여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주민들에 대해 목회자들은 환대 신학적 예배를 저들이 주관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A 교회는 주일예배를 제외하고, 부활절, 성탄절과 같은 정기 절기 예배가 있고, 연 1 회 이상 각 교회의 기관들이 주최하는 '주관 예배'가 있다. 헌신예배라고도 표현하는 주관 예배에서 교우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의식을 치른다. 이 주관 예배에 이주민 교우가 설 자리가 없다. 기관이나 사역팀에 소속되어 주관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나 철저히 선주민 교우들의 주도하에 예배가 준비되고 선주민 교우 위주의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이 오랜 기간동안 고착화되어 갈수록 이주민 교우들은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 주관하는 예배를 생각하지도 못할 것이고 요구하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서발턴과 같은 이주민 교우들에게 우리의 문화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주민 교우들의 고유문화를 존중해 주고 그들이 1 년에 1 차례 이상, 자신들이 예배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이주민 주관 예배를 제안한다.

이주민 교우들의 주관 예배를 기획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주민 교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헌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소속감과 함께 교회 중심부로 이주민 교우들이 서서히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을 나는 기대한다. 주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주민 교우들이 더욱 더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고 상호관계적인 모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예배가 다채로워지며, 예배를 통해 이주민들은 환대받는 것은 물론 다른

이를 환대할 줄 아는 훈련을 쌓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는 이주민 교우들이 주관하는 예배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기획하여 제안하는 바이다.

1) 성찬 예배 기획 의도

성찬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다. 성찬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55] 이러한 성찬의 신학적 의미를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차별과 소외, 억압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주민들과 함께 드리는 성찬 예배를 기획하였다.

환대 신학과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주민 교우들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차별과 소외, 억압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선주민 교우들은 이주민 교우들을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주민 교우들은 자신들이 받는 시혜적 환대로 인해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로 나는 이주민 주관 성찬 예배를 제안하는 바이다. 나는 서발턴의 모습으로, 주변인으로 있던 이주민 교우들이 함께 모여 서로 예배를 의논하며 주체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선주민에 대한 의존 성향을 극복하고 주체성과 자신감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예배 임사자를 이주민 교우로 선정하여 그들이 억압과 무시를 넘어 선주민 교우들과 동등한 존재임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찬양과 성경

[55] 기독교대한감리회, *새예배서*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4), 138-40.

봉독, 순서지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소통의 어려움을 서로 인지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해 보고자 한다.

이주민 교우들이 주관하는 성찬 예배 기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평등과 하나 됨"이다. 선주민 교우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민 교우 역시 하나님 앞에 그들과 동등한 존재이다. 성찬 예배는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예배이며, 이주민 교우와 선주민 교우 모두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성도가 하나 됨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특별히 세계 성찬 주일에 이주민 주관 성찬 예배를 드리려는 이유는 세계 성찬 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다. 세계 성찬 주일에 대해 이안 헤스턴 도셔(Ian Heston Doesch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세계성찬주일은 1936 년 미장로교회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940 년 미교회협의회 (당시: imageFederal Council of Churches)에 의해 교회력에 포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후 세계성찬주일은 세계적 에큐메니컬 주일로 지켜지며, 교회 연합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세계성찬주일의 목표는 성찬을 통해 맛보는 교회의 연합입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가 공통 성례인 성찬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식탁을 통하여,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즉, 세계성찬주일은 주님의 성체를 통해 전 세계 개신교가 함께 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다른 언어, 다른 전통, 다른 예식을 가진 세계각국의 교회들이 성찬을 통해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성찬주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이며, 둘째, 세계 각국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56]

결론적으로, 세계 성찬 주일에 드리는 이주민 주관 성찬 예배는 이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선주민들과 함께 예배하여 세계적 화합과 연합, 하나 됨을 가장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

[56] 다리빌더스, "세계 성찬 주일의 의미와 방향," accessed September 3, 2020, https://dari-builders.com/archives/3720.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기점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이주민 주관 예배가 여러 형태로 기획되고 진행될 때에 이주민 교우들의 의존적인 성향, 억압과 무시, 소통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예배 준비과정

'이주민 교우 주관 성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예배에 대한 이주민 교우들의 생각들을 들어 보았다. COVID-19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전화 통화와 영상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의견을 종합하였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예배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평소 이주민 교우들이 불편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기획해 보았다.

a. 이주민 교우들에게 한국어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을 천천히, 분명하게 한다.

b.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순서지를 제공한다.

c. 찬양은 가급적 짧고 단순하게 반복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며, 이주민의 모국어로 번역된 찬양을 활용한다.

d. 성경 본문은 이주민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새번역을 사용하며, 성경 찾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순서지와 영상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e. 이주민 교우들을 예배 임사자로 선정하여 그들이 주체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예배 공간과 상징물 설명

a. 예배 공간

예배 공간은 A 교회의 대예배실이 아닌 이주민 교우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소예배실이나 친교실을 사용한다. 대예배실의 경우 강단과 회중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높이의 차이로 인해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관점에서 볼 때 평등의 의미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회중석이 장의자로 되어 있어 예배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 됨을 경험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예배실이나 친교실의 경우 강단과 회중석의 구분이 없고, 높이가 동일하다. 또한, 예배 대형을 다양하게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의 연출이 가능하므로 이주민 교우 주관 성찬 예배 장소로 적합하다.

예배 대형은 좌석을 원형으로 배치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선주민 교우와 이주민 교우 모두가 평등과 하나 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원형의 중심에는 테이블을 배치하고, 성찬 예배를 위한 성찬기와 상징물을 배치하여 모두가 같은 거리에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집례자를 포함한 예배 순서 담당자들 역시 예배에 참여하는 교우들과 동일하게 원형으로 배치된 좌석에 앉는다. 이때, 원형으로 된 예배 대형의 일부분을 비워 입례의 통로로 활용한 후, 원위치시킨다.

b. 예배 장식

테이블의 경우 강단으로 활용하며, 십자가는 테이블의 중앙에 배치하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성찬을 위한 성찬기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를 배치한다. 성찬기의 경우 성찬 집례자를 위한 성찬기와 더불어 각각의 좌석에 개인 성찬기를 배치함으로써 분급의 순서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c. 단심줄

예배 공간 안에 단심줄을 설치한 후 예배 후 성도의 교제를 위해 단심줄놀이를 진행한다. 단심줄놀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단심(丹心)줄놀이(일명 길쌈놀이라고도 부른다)는 대표적인 대동 놀이로,[57] 군중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내외에 과시하는데 좋은 형식으로 강강술래와 더불어 많이 행해진다. 한가운데 소나무나 대나무로 단심봉을 세우고 12 가닥의 천을 서로 엇갈려 돌면서 엮어가는데 이때 강강술래나 쾌지나칭칭 등의 노래를 경쾌하게 부르며 박자에 맞춰 춤을 추며 엮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논다. 12 가닥의 색색 천들이 조화를 이뤄 질서 있게 중심기둥에 엮이는데 씨줄과 날줄이 직조(방직)할 때처럼 짜여서 엮이기 때문에 일명 '길쌈놀이'라고도 부르는데 학교 운동회나 큰 행사 뒤 대단원(대미)을 장식하기에 안성맞춤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단심줄놀이의 유래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19 세기 말까지 함경도 단천지방에 상원놀이(정월대보름)로 행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북미 인디언들이 우리와 똑같은 단심줄놀이를 하는 게 목격되는 걸로 봐서 실뜨기 유래가 실을 만들어 쓰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듯 단심줄놀이도 인류의 의류사 만큼이나 오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58]

예배 후 성도의 교제를 위한 단심줄놀이를 진행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 된 존재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4) 이주민 교우 주관 예배 순서 설명

a. 오르간 전주

예배를 시작하기 전, 잔잔한 곡을 연주한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한다.

---

[57] 네이버 지식백과, "대동놀이," accessed September 3, 202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292218&cid=62011&categoryId=62016. 대동놀이란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농민의 단체 놀이이다. 대동(大同)은 '차별없음'을 의미하고, 대동놀이는 대체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놀이함을 의미한다.

[58] 한국놀이연구소, "단심줄놀이(일명 길쌈놀이)," accessed September 3, 2020, https://blog.naver.com/sbrscool/221331467730.

b. 예배로의 초대

예배 시간이 되면 집례자가 예배 장소 입구에서 오늘의 예배를 안내하며 예배로의 초대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집례자 또는 이주민 1: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 됨을 경험하는 세계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이날, 우리 모두가 세계 성찬의 날에 동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11) 아멘.

예배로의 초대가 끝나면 오르간의 입례송 반주가 힘차게 시작된다. 입례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촛불 점화자, 성찬 보좌, 기도자, 성경 봉독자, 집례자'의 순서로 예배 순서 담당자들이 함께 입장한다. 이러한 입장 순서는 목사가 중심이 되고 제일 앞장서야 하는 한국 교회의 권위적인 풍토에 대해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히 뒤따르는 종의 모습을 나타내길 바래서이다.

촛불 점화자는 단 위의 성령이 임재를 상징하는 초에 불을 붙이고 준비된 자리에 가서 앉는다. 그 후 예배 순서 담당자들과 집례자는 원형으로 배치된 동일한 높이의 좌석 중 빈 곳에 자연스럽게 가서 앉는다. 특별한 좌석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집례자와 예배 순서 담당자를 비롯한 예배 참여자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등한 존재임을 경험하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c. 찬양 – 좋으신 하나님

각국의 언어로 찬양할 수 있도록 짧고 단순한 찬양곡을 선정하였다. 이주민 교우들과 선주민 교우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바탕으로 공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순서지에 각국 언어의 가사를 기재하였다. 이주민 교우들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가 많지 않음을 선주민 교우들에게 설명하고, 선주민 교우들도 각국의 언어로 찬양하며 평소 이주민 교우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찬양의 가사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으로 개사하여 공동체성을 강조하도록 한다.

d. 대표 기도

이주민 교우가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 선주민 교우가 아닌 이주민 교우들도 예배 순서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음에 의의를 둔다. 특별히, 세계성찬주일을 맞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하나 됨을 감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준비된 기도문을 이주민 대표 기도자가 읽는 것으로 한다.

e. 성경 봉독

성경 봉독은 이주민 교우가 한국어로 먼저 봉독한 후 자국어로 다시 한번 봉독한다. 이때, 한국어 성경의 경우 예배에 참여하는 이주민 교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새번역을 사용하며, 천천히 봉독한다.

f. 설교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이주민 교우 주관 성찬 예배임을 고려하여 설교의 주제를 "평등과 하나 됨"으로 정해 보았다. 그리고 누가복음 19 장 1-10 절을 본문으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제목의 설교문을 준비하였다.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우리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서로 존중하며 상생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교문은 〈부록 C〉에 첨부하였다. 설교문의 경우 예배에 참여하는 이주민 교우들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g. 성찬

한국 교회 안에서 성찬 보좌는 일반적으로 선주민 교우 중에서도 장로 그룹이 참여해왔다. 그러나 세계성찬주일에 드리는 이주민 교우 주관 성찬 예배임을 고려하여 이주민 교우들이 성찬 보좌를 담당한다. 성찬 집례 과정에서 질긴 보리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연합하는 성찬의 의미를 극대화한다. 또한, 분급 시에는 모든 사람이 앞으로 나와 스스로 빵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로서 주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성찬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랑의 나눔"을 각국의 언어로 찬양한다. 이주민 교우들이 자국어로 찬양하여 찬양의 가사를 더욱더 쉽게 이해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성찬을 마무리한 후 성찬 고백의 순서로 이어간다.

h. 성찬 고백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성찬을 받은 후에 이주민 교우들과 선주민 교우 중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감을 나와서 이야기하는 '성찬 고백'의 순서를 진행한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 됨을 경험하고,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한 후 성찬 고백을 나눔으로 누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등한 존재이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i. 결단찬양

"사랑의 주님이"라는 곡을 선정하였다. 찬양의 가사 중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라는 가사에 초점을 맞추어 원형의 예배 대형 안에서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여 평등과 하나님을 경험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결단하도록 한다.

j. 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한 몸이며, 평등한 존재임을 선포하고, 예배를 통해 경험한 것들을 삶 속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 존중과 배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한다.

B. 이주민 교우 주관 성찬 예배 기획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피드백 (Feedback from Research Participants)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나는 실제로 이 기획된 예배를 실행해 보고, 이주민 교우들이 겪는 갈등과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지 대해 검증해 보고 싶었다. 또한 선주민 교우들과 이주민 교우들이 상생하는 신앙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COVID-19 유행병으로 인해 준비된 이주민 교우 주관 성찬 예배를 실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 참여자들에게 기획된 예배 전체를 설명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아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 반응)

[연구 참여자 D]
솔직히 저는 자신은 없지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잘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신다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이 성찬 예배를 통해 주님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참여자 A]
부분적인 부분이라도 우리들의 언어로 말씀을 봉독하고 찬양하는 거 참 좋을 거 같아요. 평등과 하나 됨이라는 주제도 너무 좋고요. 이주민 교우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의논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 선주민 교우들처럼 우리도 예배를 주관할 수 있다는 것에서 좀 더 음...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B]
한국에 와서 언어적으로 적응하느라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저희 언어로 찬양하고 저희 언어로 성경 봉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순서지도 저희 언어로 된 것이 있으면 더 좋겠구요.

(부정적 반응)

[연구 참여자 H]
새로운 예배를...꼭 해야 하나요?

[연구 참여자 E]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제가 함께 주관하는 예배를 드리고는 싶지만, 자신이 없네요... 제 형편상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과연 이 예배를 통해 이주민 교우들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구 참여자 I]
우리가 기도도 하고 사회도 본다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다 늙어서 겁나네요. 할만한 사람 시키세요.

[연구 참여자 C]
예배를 직접 주관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가만히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됐는데..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부담되어서 다른 예배에 참석할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F]
저는 복잡한 거 싫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면 더 싫습니다. 굳이 왜 예배를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를 기획하셨다는 건 알지만요.

예배를 직접 자신들이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기대감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예배 가운데 일부 자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자국어로 찬양하고 말씀 봉독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예배 가운데 자국어를 듣고 말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들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이주민 교우를 위해 순서지를 만들 수 있다는 말에도 매주 그런 배려가 있다면 좋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국어에 서투른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언어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필요해 보였다.

그러나 피드백을 통해 나는 이주민 교우 대부분이 예배를 주관하여 디자인하고,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큰 부담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59] 주관 예배에 대한 기획 의도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하며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대부분 표현했다.

[59] 실제로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그들이 삶의 기본적인 부분, 의식주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인 신앙생활과 참여가 제한되고, 이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꼭 해야 하나요?”라는 소수의 반문도 있었다.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인데 뭘 또 하라고 하시느냐”라는 의미였다. 나는 이주민 교우 주관 성찬 예배가 이주민 교우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이주민 교우의 의존적인 성향, 억압과 무시, 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중심의 목회 돌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이주민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주관 성찬 예배를 기획하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이주민들에게는 부담과 억압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나는 연구를 하는 나조차 기존의 선주민 교우들과 마찬가지로 내면화된 콜로니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변화되기를 강요하며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주민 교우들을 위한 실천 중심의 목회 돌봄으로서의 이주민 주관 성찬 예배 역시 그들에게는 부담과 억압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결국 이주민 교우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 대안으로서 예배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이주민 교우들의 의존적인 성향, 억압과 무시, 소통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새로운 시도들과 함께 더욱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또 다른 목회 돌봄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Chapter V

결론 (Conclusion)

인간은 모두가 다르듯이 이주민과 선주민도 서로 다르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며,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 한국 사회 안에 이주민은 다르다는 이유로 선주민들에게 때로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소외받고 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 사회 안에 이주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이주민 교우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이주민 교우들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2018 년 미국 탐방을 통해 이주민 교우들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낯선 곳에서의 불편한 경험을 통해 "한국 땅에 이주해 살아가는 이주민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 속의 이주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계기로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이주하여 사는 이주민 교우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생겨났다. 그리고 그 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 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을 통해서 "갈등, 화해, 변화를 위한 실천 신학"의 관점으로 나의 목회관을 재정비하게 되었다. 특별히 포스트 콜로니얼리즘과 환대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주민 교우들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제일 먼저 치유되고 변화되어야 할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이주민 교우들에 대해 단순히 가엽다고만 생각해왔다. 낯선 한국 땅에 와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많이 보았기에 교회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성경적 관점으로 교회를 찾는 이주민 교우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과 환대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의 이 모습은 시혜적 차원에서 돕고자 한 것일 뿐 공정한 환대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시혜적 차원이란, 한쪽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혜를 말한다. 시혜적 차원에서 베푸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시선과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저들보다 우월한 위치, 그래서 돕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콜로니얼리즘의 모습이다. 이주민 교우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에 이런 콜로니얼리즘적 문제가 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나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과 환대 신학의 관점에서 이주민 교우들을 도울 구체적인 방법들을 고민하며 이 질적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A 교회에 6 개월 이상 출석하는 이주민 교우들을 30 대부터 70 대까지 세대별 2 명씩 선정하여 모두 10 명을 심층 면담했다. 심층 면담의 내용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 근거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7 개의 의미 있는 진술과 6 개의 주제, 3 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3 개의 범주는 이주민 교우들에게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성향의 모습, 선주민 교우들로부터 받는 억압과 무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등 이었다. 나는 도출된 3 개의 갈등과 어려움을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대안으로 차별을 넘어 평등을 지향하는 환대 신학적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를 제안하였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이미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 발맞춰 교회 공동체는 획일화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상호 의존을 지향하는 신앙 공동체는 모두를 필요로 하며 모든 지체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상생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회 공동체와 선주민 교우들이 이주민 교우들에 대해 나그네를 돌보는 소극적 환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주민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주민을 향한 공정한 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 번 왔다 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이주민 교우를 환대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가족으로 동등하게 받아들이고 평등과 존중으로 이주민 교우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인정하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적 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적 환대를 두 팔 벌려 타인을 환영하되 타자를 나의 일부로, 평등한 존재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주민 교우들을 더 이상 타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환영하며 상생해야 할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모델이 바로 예수다.

예수는 당시 소외당하고 차별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세리였던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누가복음 19:9)"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 자녀로 그를 인정하였다. 예수는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개역개정)"라고 말씀하였다.

이와 같은 예수의 모습처럼 선주민 교우들 또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주민 교우들을 찾아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시혜가 아닌 이주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교회 안에서 자주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평등과 존중을 지향하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적인 환대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주민 교우들도 콜로니얼리즘 요소들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주민 교우들이 수동적이고 의존적 성향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 또한 차별을 넘어 평등을 지향하는 환대 신학적 공동체에 어울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주민 교우들이 선주민 교우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경험하고 한 몸의 지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주민 교우 주관 성찬 예배를 제시하였다. 이 예배가 이주민 교우들에게 교회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로 들어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주체적인 모습으로 교회 활동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며 준비하였다. 그동안 목회를 하며 다양한 예배를 기획해 본 경험이 있지만, 포스트 콜로니얼리즘과 환대 신학 관점에서 이주민 교우들이 주관하는 예배를 기획하는 것은 나에게 어려운 과제였다. 이미 콜로니얼리즘적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내가 한국 교회의 콜로니얼리즘적인 예배의 요소들을 찾아내 제거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더 나아가 연구참여자들의 피드백을 통하여 아직도 내 안에 내면화된 콜로니얼리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제시된 예배만으로는 이주민 교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안은 무엇일까? 이에 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미국 탐방 경험을 떠올려 보았다. 낯선 미국 땅에서 나는 여행 가이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며 주변인이 되었던 이유 또한 언어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다. 나는 무지 때문에 부당함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억압 또한 느낄 수 조차 없었다. 이주민 교우들 또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무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의존 성향,

억압과 무시, 소통의 어려움은 단순히 교회에서 신앙 생활 혹은 예배 생활을 더 잘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선주민 교우들이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무지를 앎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사회적, 구조적,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언어의 무지를 앎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한국어 교실이라든지 문화의 무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화 교실 등을 교회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목회 페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주민 교우들이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거나 장소를 제공하여 그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교회가 구조적으로 그런 자리를 조성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이주민 교우의 현실적인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폭넓은 구조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다. 이주민 교우에 대한 호의적인 차원을 넘어 이주민 교우의 삶과 상황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교회 전체의 목회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어야 하고, 또 다른 차원의 목회 돌봄이 새롭게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 과정을 통하여 나의 이러한 목회관의 변화가 생긴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고민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이주민 교우와 선주민 교우가 서로의 '다름'이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기억하며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환대를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부록 A: 연구참여동의서
(Appendix A: Informed Consent Form)

저는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김귀호 목사입니다. 저는 "이주민들의 교회 정착 과정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환대를 지향하는 목회 돌봄에 관한 질적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오현선/김남중 교수님의 지도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오현선 교수(ohs9383@gmail.com / ***-****-****), 김남중 교수(njkim@cst.edu/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는 현재 서울 구로동에 거주하고 있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소속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교회 정착 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환대를 지향하는 목회 돌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 안에 있는 이주민들이 교회 정착 과정에 대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이 논문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교회 안에 다문화 가정의 이주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새로운 목회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다면, 귀하는 인터뷰에 약 1 시간가량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경우 2~3 번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진행 과정 동안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고 필사될 것입니다. 녹음되는 모든 내용과 필사본은 연구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할 것이고 연구가 마쳐진 후에는 해당 내용을 모두 안전하게 파기될 것입니다.

연구 참여에 대한 귀하의 이름, 이메일,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만 보관되고 연구 종료 후 폐기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성함과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기재함으로써 귀하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 불편함, 관계적 우려등으로 만약 연구 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참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김귀호의 전화번호 010-2024-8471 혹은 kwiho.kim@cst.edu 로 연락 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 왔습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 심사위원회 회장, 김두영 박사의 연락처인 010-2544-4206 혹은 viastar@hanmail.net 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

연구 참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기록을 위하여 이 문서의 사본이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부록 B: 이주민 교우 주관 세계성찬주일 성찬 예배 자료

(Appendix B: World Holy Communion Service Materials Hosted by Immigrants)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세계성찬예배순서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집례 : ○○○목사

* 예배로의 초대 .... 집 례 자

* 입 례 .... 예배임사자

* 찬 양 .... 좋으신 하나님 .... 다 함 께

필리핀 napakahusay ng diyosnapakahusay ng diyos
Napakabuti ng Diyos sa akin

중국어 上上帝真好 上帝真好
Shàngdì zhēn hǎo Shàngdì zhēn hǎo
上帝對我很好
Shàngdì duì wǒ hěn hǎo

영 어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한국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대 표 기 도 .... 이 주 민 1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19: 1-10(표준새번역) .... 이 주 민 2

1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2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3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
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
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4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5예
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6그러자 삭개
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였다.7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
고 들어갔다."8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9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
함의 자손이다.10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설　　교 ………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 ○○○목사

성 찬 식 ……… 다 함 께

찬　　양 ……… 사랑의 나눔/사랑의 주님이 ……… 다 함 께

‖ 사랑의 나눔 ‖

필리핀 Kung saan mayroong pagbabahagi ng pag-ibig ang
Diyos ay naroroon

중국어 分享爱的地方，上帝就是
Fēnxiǎng ài dì dìfāng, shàngdì jiùshì

영　어 Where there is love among his people
God is present there in the midst of them

한국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 사랑의 주님이 ‖

필리핀 Mahal ako ng Lord na puno ng pagmamahal
Natanggap mo ang paraan na ako
Tulad ng pagmamahal ng Panginoon na mahal ako
Mamahalin at paglilingkuran din kita

중국어 充满爱的主爱我
Chōngmǎn ài de zhǔ ài wǒ
你以我的方式接受了
Nǐ yǐ wǒ de fāngshì jiēshòule
就像爱的主爱我
Jiù xiàng ài de zhǔ ài wǒ
我也会爱你，也为你服务
Wǒ yě huì ài nǐ, yě wèi nǐ fúwù

영　어 God of love, Jesus Christ loves me just the way I am
As I am He accepts me with His love
God of love, Jesus Christ loves me just the way I am
I love you with His love we are loved

한국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축　　도 ……… ○○○목사

단심줄 놀이 및 애찬 ……… 다 함 께

세계성찬주일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다른 언어, 다른 전통, 다른 예식을 가진 세계각국의 교회들이 성찬을 통해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계 모든 열방이 주님 안에 하나임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단심줄 놀이

단심(丹心)줄 놀이는 대표적인 대동놀이로 12가닥의 색색 천들을 씨줄과 날줄이 직조(방직) 방식으로 중심기둥에 엮는 놀이이다. 과거에 강강술래와 더불어 군중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내외에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형식의 놀이였다. 대동(大同)의 사전적 의미는 "큰 무리"로, "조금 차이는 있어도 대체로 같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차별없음'을 의미한다.

부록 C: 이주민 교우 주관 성찬 예배 설교문

(Appendix C: Sacrament Service Sermon Hosted by Migrant Alumni)

설교의 목적	우리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며, 서로 존중하며 상생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한다.
제목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본문	누가복음 19 장 1-10 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 장 1-10 절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고, 구원받았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삭개오의 호기심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1-3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2]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3]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사실 삭개오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뒤로한 채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고, 그 선택을 통하여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지나치지 않고 만나려고 한 선택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변화도 우리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항상 변화의 시작점은 내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좋은 선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하겠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선택하고 4 절 말씀에, '[4]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와 같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삭개오의 이 특별한 행동은 예수님을 보고자 한 그의 간절한 마음을 잘 나타냅니다. 바로 그때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5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또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0 절 말씀과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에게 시선을 집중하심으로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삭개오의 삶의 변화와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방식(mode of seeing)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고개를 돌려서 주변의 것들을 살펴보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 NRSV 번역을 통해 5 절을 보면 주변을 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looked up'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looked up'은 '찾아보다' 라는 숙어로 원하거나 필요한 것을 애써서 찾아볼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주변부에 위치하여 잘 눈에 띄지 않는 것까지도 찾아보시는 시선을 가진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강하고, 멋있고, 중심이 되는 주된 것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볼품없고, 주변부에 위치해 눈에 띄지 않는 것까지도 찾아보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인물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사랑받지 못하고 또한 실패감에 빠져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삭개오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이 보시는 방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여깁니다. 죄인이기에 어울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예수님과 삭개오가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5~8 절 사이의 대화 속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8 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삭개오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제자 중 누가 귀띔해 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8 장에 나오는 부자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주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 실패하였는데,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진 것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혹시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네 배로 계산해서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천국시험'을 너무나 쉽게 통과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은 9 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됨을, 동등한 관계됨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듯,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는 선포를 통하여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동등된 자녀임을, 언약 백성임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한 가지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이 바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 인정과 선포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고 더욱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 어떤 사람도 주변부에 놓여있지 마시고 함께 나와 성찬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경험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몸이 됨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랑과 평등과 하나님의 정의 등을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까지도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외받는 그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또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목적을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이전의 삭개오의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선포를 통해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낮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으며, 많은 군중 가운데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던 삭개오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인정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중심의 자리로,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로 들어오게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며, 진정한 의미의 평등과 하나 됨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한서]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파주: 동녘, 2017.

권진숙. *관계 문화 이론*.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3.

기독교대한감리회. *새예배서*.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4.

김미영. *질적연구에서의 인터뷰*. 서울: 현문사, 2013.

김영천. *질적 연구방법론 I: Bricoleur 2nd*.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______. *질적 연구방법론 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______. *질적 연구방법론 IV: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

박노자, 성상희, 박흥순, 오경석, 이용승, 이용재, 오현선, and 김수진. *지구화와 이주 그리고 생명평화*. 서울: 도서출판 참, 2019.

서근원.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시대의 삶과 문화와 교육, 그리고 질적연구*. 파주: 교육과학사, 2013.

신경림, 조명옥, and 양진향. *질적 연구방법이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신경하.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2007.

오세경. "근거이론: 광산에서 보석 캐기." In *질적연구의 즐거움=Qualitative Research,* edited by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 조현영, 최승은, 정지현, 오세경, 김창아, 김민규, 김기화, and 임한나, 305-35. 서울: 창지사, 2018.

오현선. *기독교 다문화교육: 다름·다양성·관용*. 서울: 꿈꾸는터, 2014.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and 김한별.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18.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1.

[번역서]

Kim-Cragg, HyeRan.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상호의존성: 포스트식민주의 여성주의 실천 신학.* Translate by 이호은. 서울: 동연, 2020.

McLeod, John. *Beginning Postcolonialism 탈식민주의 길잡이.* Translated by 박종성.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Ru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Translated by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서회, 2012.

Young, Iris Marion.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Translated by 김도균 and 조국. 서울: 모티브북, 2017.

[논문 및 저널]

고광석. "다문화 선교를 위한 "이주민"의 성경적 이해와 선교적 적용." *개혁논총* vol. 47 (September 2018): 97-135.

김성호.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다문화사회복지의 과제: 평등을 지향하는 공정한 환대의 실천." *기독교사회윤리* vol. 36 (December 2016): 37-75.

박충구. "탈식민주의 담론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이해." *신학과 세계* vol. 49 (March 2004): 188-214.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vol. 23, no. 1 (June 2004): 511-25.

[웹사이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년 6 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Accessed September 3, 2020. http://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59912315639710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주민." Accessed September 3, 2020.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9D%B4%EC%A3%BC%EB%AF%BC.

다리빌더스. "세계 성찬 주일의 의미와 방향." Accessed September 3, 2020. https://dari-builders.com/archives/3720.

네이버 지식백과. “대동놀이.” Accessed September 3, 202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292218&cid=62011&categoryId=62016.

한국놀이연구소. “단심줄놀이(일명 길쌈놀이).” Accessed September 3, 2020. https://blog.naver.com/sbrscool/221331467730.